K-농업의 미래, 나주에서 열린다…10월 23일 개막

AI 농업 혁신, K-농업 비전 등 나주서 7일간 선보여

윤병태 시장 "한국의 농업 미래, 나주가 이끌겠다"

전라남도 나주시가 대한민국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AI와 스마트기술로 농업혁신의 길을 제시할 이번 박람회는 나주시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지난 23일에 개막해 오는 29일까지 7일간 열린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AI 첨단 농업기술 전시, 미래 농업 시연, 글로벌 수출과 투자상담회, 농식품 홍보 및 판매,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4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성공적인 박람회 진행을 위해 박람회장 주변 대기차선 확장, 홍보 꽃탑 설치, 도로변 정비 등 교통과 환경을 정비하고 관람객 환영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전광판, 시정 소식지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공식 SNS, 서포터즈 활동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며 박람회 열기를 더하고 있다.

특히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 홍보관과 별도로 지역 내 13개 업체가 참여하는 농특산물 가공식품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나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나주시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홍보관을 설치해 지역 농업인의 가공 인프라와 미래 식품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소개한다.

박람회장 내 먹거리 부스 '남도식당'도 기대를 모은다.

이번 남도식당은 나주의 대표 외식 브랜드인 '나주밥상' 지정업소 10곳이 참여해 곰탕, 홍어, 장어 등 나주 대표 음식을 선보인다.

또한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나주밥상 지정업소(44개소) 방문 시 10% 할인, 황포돛배 50% 할인, 목사내아 숙박 30% 할인, 빛가람전망대 모노레일 및 돌미끄럼틀 무료 이용, 중흥골드스파 & 리조트 숙박 할인, 우주드림 입장권 20% 할인 등 다양한 관광 및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박람회 기간 관람객 편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주관광 투어버스'를 운행한다.

이를 통해 지난 10월 8일 영산강정원에서 개막한 '2025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 나주읍성, 황포돛배 선착장 등 주요 관광지를 쉽게 둘러볼 수 있다.

이 밖에도 '2025 제2회 나주 푸드포럼' 개최와 함께 16개국 50여 명의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진행돼 전남 농식품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4년 만에 나주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는 첨단 기술과 농업이 결합한 미래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AI 기반 스마트 농업과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와 함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주가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이명열 기자

마법의 세계로 여행! 함평군, 마법의 국향랜드' 개장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화려한 서막을 알리다

가을의 정취와 향기로운 국화가 물드는 계절,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한층 더 환상적인 마법의 공간으로 변신해, 가을 손님을 맞이한다.

함평군은 24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장식을 개최하며 국화를 주제로 한 환상의 축제 '마법의 국향랜드'의 화려한 서막을 알렸다. 마법의 국향랜드는 11월 9일까지 17일간 개최된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한 모정환 전남도의원,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함평축제관광재단 임원진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축제는 국화의 수수하고 아름다운 자태에 판타지적 상상력을 더한 새로운 콘셉트의 체험형 축제로 기획됐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형 가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축제장에는 대형 국화 조형물인 회전목마, 대관람차, 전시컵 등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가을의 낭만을 선사한다.

또 브라스밴드 거리공연, 국향 마술버블쇼, 국향콘서트 in Day, '국향끼스타를 찾아라', '마법의 휴먼포토'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국화의 향기와 마법의 상상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가을을 만끽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축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고흥군, 2025년 소록도 주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소록도 주민들의 화합과 활력, 건강 증진 위한 축제의 장 마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3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소록도 주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풍요와 수확의 계절을 맞아 소록도 주민의 건강한 삶과 공동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록도 원생자치회가 주관하고 300여 명의 주민과 병원 직원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마을대항 윷놀이, 고리 던지기 등 단체전과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웃음과 열기로 가득했다. 특히 100세 어르신을 위한 장수 축하 잔치가 열려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공영민 군수는 축사에서 "소록도 주민 여러분은 따뜻한 마음과 굳은 의지를 지닌 분들"이라며 "소록도의 역사와 자연을 보존하면서,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며 "소록도 세상 나들이 지원 확대,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경로당 신축 검토,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냉장고, TV, 쌀, 생활용품 등 경품추첨으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소록도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곡성군, 2025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곡성의 맛과 향이 한자리에"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박람회장에서 농특산물 홍보판매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곡성의 대표 작물인 토란, 와사비, 멜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가공품을 전시하고,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특히, 토란누룽지칩, 와사비절임, 스쿱쿠키 등 인기 상품이 전시·판매되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홍보판매관을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룰렛을 돌려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고 있어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야외홍보부스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식 행사와 이벤트가 진행중이다. 곡성의 대표 작물 토란으로 만든 토란치즈떡, 토란하트떡, 와사비 주먹밥 등을 시식할 수 있으며, 룰렛 이벤트를 통한 경품 증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란을 비롯한 곡성의 농산물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미식체험형 홍보 공간으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곡성 농산물의 맛과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박람회를 찾은 많은 분들이 곡성의 토란과 와사비, 멜론 등 농특산물을 맛보고 즐기며 지역 농업의 가치를 체감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곡성 농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온라인 홍보와 유통채널 연계 마케팅을 강화해, 박람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도시 곡성'의 이미지를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무안군, 2025 농림어업총조사 업무 수행 조사요원 모집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08명 모집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되는「2025 농림어업총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인원은 총 108명으로, 현장조사 지도와 지원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1명, 조사관리자 10명,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조사지원담당자 4명, 현장방문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 85명, 예비조사원 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10월 27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2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으로, 무안군 거주자,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2020 농림어업총조사·2020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유경험자,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청년취업대상자 등을 우대한다.

응시원서는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www.affcensus.go.kr)에서 접수하거나, 무안군청 기획실,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는 10월 27일부터 무안군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광진 기획실장은"5년에 한 번 진행되는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상태를 파악하여 농림어업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책임감과 성실한 조사요원 모집을 위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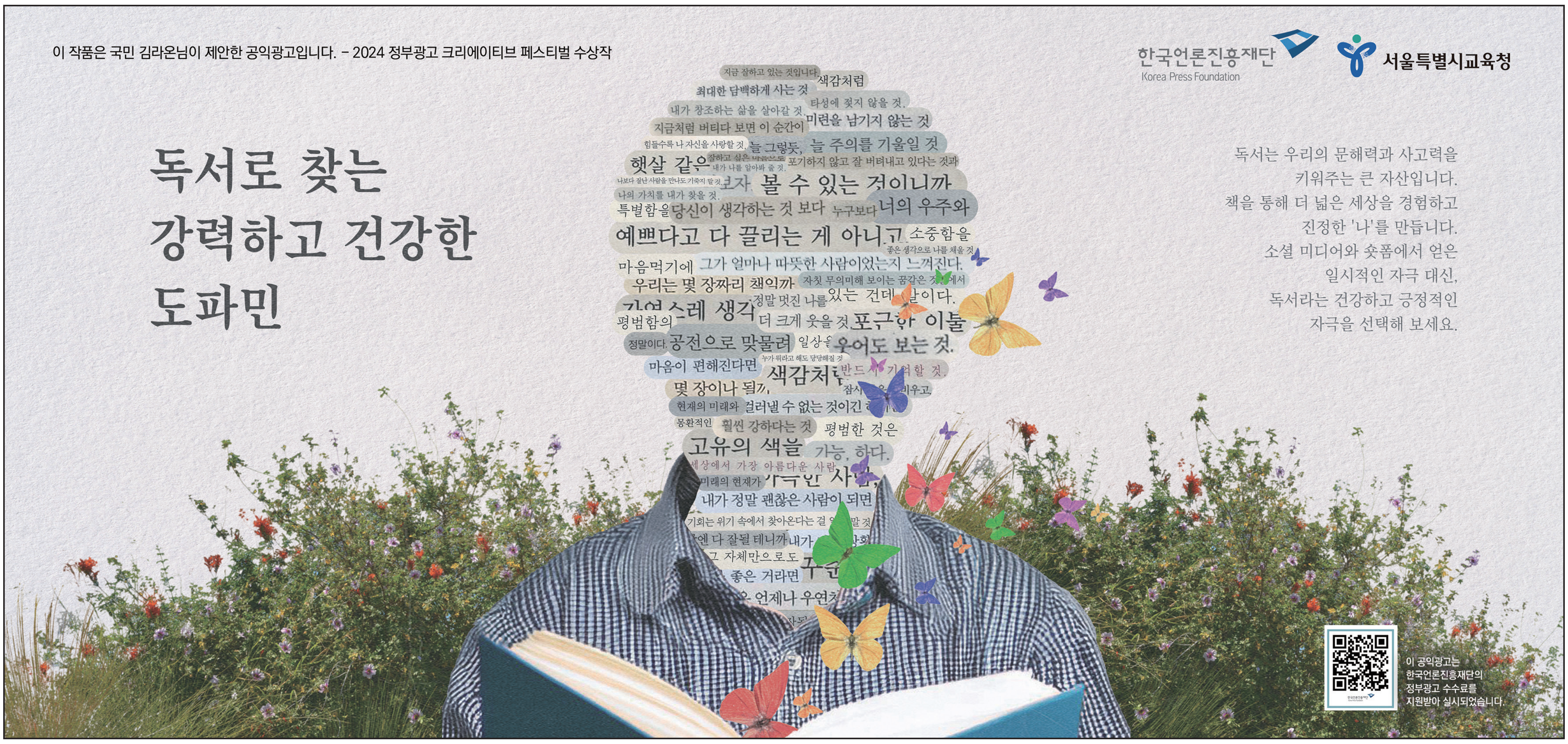
10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지급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난 9월 22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신청 기간이 곧 마감된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와 별도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고 있으며, 7월 31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청 마감은 10월 31일 오후 6시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세대별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일정 서류를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군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률이 90%를 넘었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지급 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 꼭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062-525-9775